

순천시, 국내 최초 흑두루미 위치추적기 부착 성공

천연기념물 228호...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분류 흑두루미 이동루트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 연구 돌입

순천시가 흑두루미 이동루트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시는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순천만 흑두루미 5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흑두루미의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순천시와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가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하여 위치추적기 부착에 성공했다.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이동 경

로 연구가 시작된 셈이다.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해 수신받는 위치추적기 무게는 22g이며, 태양광 충전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이용 패턴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생태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 전략 수립과 지자체 간, 국가 간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와 분산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면서 "2023순천만국제원앙박람회를 통해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하여 대한민국 마라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12일 순천만국제습

지센터에서 충남 서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보전에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문화를 누리다 연간 11만 원 지원

보성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보성군 지원 대상은 총 3,815명이다.

보성군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년도 발급자가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보성=김명순기자

고흥군 SNS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모집

고흥군은 군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흥소식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SNS기자단, 고고톡(GO-Goheung-Talk)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고톡 서포터즈'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로 고흥을 널리 알리는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SNS기자단으로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개인 SNS 계정이 있으며, 고흥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글쓰기와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사람으로 SNS 운영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일반 10명, 중·고등학생 5명으로 총 15명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공지사항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2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활동 기간은 2년간이며, ▲고흥군의 축제, 문화, 행사 시 다양한 현장소식 취재 홍보 ▲고흥의 숨은 명소와 맛집 등을 찾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 ▲고흥군 공식 SNS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좋아요, 공유, 댓글)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군은 고고톡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자에게는 글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와 활동 우수자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목 튀는 색다른 시각으로 생동감 넘치는 긍정 홍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제철 음식은 지금, 현지에서 먹어야 제맛

광양백운산고로쇠·섬진강벚꽃·재첩회 등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광양미식여행



광양시가 겨우내 춥고 건조한 날씨로 저하된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광양미식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백운산고로쇠와 섬진강 벚꽃, 재첩 등 제철 음식과 상쾌한 봄바람을 호흡할 수 있는 여정지를 엮어 선보였다.

청정 백운산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미네랄, 마그네슘, 비타민 등이 풍부한 신비의 약수로 이른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도선국사가 좌선 후 무릎이 펴지지 않았는데 고로쇠를 먹고 곧바로 일어선 후 뼈에 이롭다는 의미로 골리수(骨利樹)라 칭했고, 음운변화로 고로쇠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신라와의 전투에서 패전 위기에 몰린 백제군이 화살이 박힌 고로쇠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액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여 승리를 이끌었다고 한다.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내달 17일까지 고로쇠약수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시에서는 해마다 옥동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에서 백운산 고로쇠의 풍성한 채취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올리는데 올해는 오는 16일 개최한다.

청정 섬진강에서 채취되는 벚꽃, 재첩 등은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의 먹거리타운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강에서 나는 골리만 뜻으로 강골로도 불리는 벚꽃은 생김새가 물속에 핀 벚꽃처럼 보인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벚꽃이 필 무렵 맛이 가장 뛰어난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어른 손바닥만 한 벚꽃은 2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만 맛볼 수 있는 봄철 음식으로 싱그런 향과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재첩은 국, 회무침, 전 등으로 다채롭게 변주되는데 칼슘과 인이 풍부해 간 보호,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재첩국에 열에 손상되지 않는 비타민을 함유한 부추를 띄워 먹으면 맛과 건강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맛갈스럽고 상큼한 봄철 음식을 즐긴 후 낭만 가득한 망덕포구, 별해는다리, 배알도 섬 정원 등을 거닐다보면 오감을 만족하는 광양미식여행이 완성된다.

정규영 관광과장은 "봄을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은 봄철 음식을 즐기는 것"이라며, "백운산, 섬진강 등이 선물한 고로쇠, 벚꽃 외에도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등 먹거리가 가득한 광양에서 즐기는 미식여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시, 여수미래혁신지구 기관단체와 '상생발전 모색'

여수시가 여수미래혁신지구의 기관단체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여수혁신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수미래혁신지구의 임주기관과 기관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정 시장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남동부지사) ▲전남여성수학융합원 ▲전남대 공정혁신시물레이터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에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안전체험교육장 활성화 방안, 후속사업에 대한 관심 요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